

지리산 휘돌아 걸어서 274km...둘레길 열렸다



25일 완전 개통...5년만에 전남·전북·경남 117개 마을 환상 연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 둘레길'이 오는 25일 완전 개통된다. 산림청과 사단법인 숲길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남원시와 구례군 경계인 밤재에서 지리산 둘레길 통합 개통식을 갖는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조성에 들어가 5년 2개월 만이다.

△3개도·117개 지리산마을 환상 연결 = 산림청과 사단법인 숲길과 남원시, 구례군, 경남 함양군·산청군·하동군 등이 길 조성에 참여했다.

'지리산 둘레길'은 정비 원칙으로 보전 중심·안전 중심·경관 중심·자원 중심을 적용하고, ▲길을 통한 광역 단위의 자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느림(slow) 지향의 문화 확산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신개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창출을 목표로 조성됐다. 지리산 곳곳의 옛길과 고갯길, 논둑길, 마을길, 강변길 등 680여 리(274km) 구간을 고리(環)형으로 연결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원(46km)·구례(77km)·경남 함양(23km)·산청(60km)·하동(68km) 구간 등 3개도, 5개 시·군, 20개 읍·면 117개 마을에 걸쳐 있다. 지리산 둘레길은 숲길(43.8%)·농로(20.8%)·마을 고갯길(19.9%)·임도(14%)·도로(1.4%)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구간은 운봉~인월~금계~동강~수철~어천~운리~덕산~위태~하동호~삼화실~대축~오미~방광~담동~범재~주천

둘레길 한바퀴 걷기는 산림청에서 모집한 '둘레길 이음단' 14명이 2개 팀(한마을 이음단·푸르미 이음단)으로 각각 나눠 밤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발, 보름 동안 둘레길 274km를 걸은 뒤 원점으로 되돌아오며 전체 구간을 모니터링 한다. 두 이음단은 걷기 도중에 15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화합을 다짐하는 만남의 날 행사도 갖는다. 특히 이들 이음단은 개통식 당일 행사장에서 (사)숲길로부터 1호 완주 인증서를 받는다. 한편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인월센터(063-635-0850)·구례센터(061-781-0850)와 (사)숲길 인터넷 홈페이지(www.trail.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 = 백선기자 bs8787@

생태계 교란 주범 베스 잡자

정읍시 내달 2일 옥정호서 낚시대회

'2012 정읍시장배 전국 베스 낚시대회'가 6월 2일 산내면 황토리 일원 옥정호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옥정호의 생태계를 교란·파괴하는 외래종인 베스를 포획해 토종어류의 서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수종 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보 낚시만 허용된다. 하지만 투어 낚시 마나이를 위해 대회전인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옥정호 정읍시 수역에서 베스 낚시가 허용된다. 참가자 신청·접수는 당일 현장에서 하며, 참가비는 일반 2만원, 여성



과 초·중·고등학생은 1만원이다. 우승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만원과 부상을 비롯해 대어상·다어상·다가족상·원거리상·환경보호상 등 다양하게 시상할 예정이다. 문의: 한국스포츠피싱 협회(02-777-3885) /전북취재본부 = 박기성기자 parkks@

소외이웃 찾아가고 복지 통합서비스

남원 '희망복지 지원단' 현판식

남원시가 복지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남원시는 지난 11일 시청 주민복지과 앞에서 이환주 시장과 공기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복지 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 앞으로 희망복지 지원단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웃을 적극 찾아 도우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지지방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희망복지 지원단은 저소득층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296개 전문화된 사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상담을 받고 적



절한 서비스를 신속히 찾을 수 있어 복지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환주 시장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 = 백선기자 bs8787@

道, SNS로 정책 소통

JB 소셜 크리에이터 발대

전북도가 SNS를 활동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 그룹을 운영한다. 전북도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도민으로 구성된 '2040 JB 소셜 크리에이터'(총 20명)를 선발해 최근 명에 위촉과 함께 발대식을 가졌다. 오는 12월 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되는 '2040 JB소셜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소통창구로 각광받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활동 기반으로 해 전북도의 필요한 혁신 아이디어를 기획, 제안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북도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아이디어를 전북도에 수시로 제안하고, 전북도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 = 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옥산IC~월명 운동장 지방도 임시개통

군산시 옥산IC~월명 종합 운동장을 연결하는 2.7km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전북도는 17일부터 옥산IC~월명 종합 운동장간(지방도 709호) 4차선 도로를 전북 도민체육대회 일정에 맞춰 임시 개통한다.

이 도로는 전주~군산 산업도로가 개통되면서 옥산IC를 통해 군산시 내로 진입하거나 전주·익산·김제 등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1일 1만2000대를 넘는 등 교통량이 급증해 교통체증을 빚어왔다. 전북도 도로공함과 안석 담당은

"오는 18~20일 군산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을 맞아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편리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개통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2007년 1월 착공해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 = 박기성기자 nogusu@

단신

군산시청 조정팀 전국대회 우승

군산시청 조정팀이 최근 열린 '제6회 화천 평화배 전국 조정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영래·이선희·임은주·피선미 선수가 '쿼터러플' 1위를 차지했고, 김영래·피선희 선수가 '무타페어' 2위, 이선희·최선아 선수가 '더블스컬' 3위를 차지했다. 또 임은주 선수가 '싱글스컬' 4

익산 시립도서관, 독서마라톤 신청 접수

익산 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시킨 '익산 둘레길 독서마라톤'을 진행한다. '익산 둘레길 독서마라톤'은 1m를 책 1페이지로 환산해 참가자의 독서능력에 맞게 선택한 종류의 독서량을 완주하는 독서운동이다. 독서마라톤은 ▲하라산 양반길 2.9 km ▲성당포구 응머리길 6km ▲무왕길 18.4km ▲미륵산 둘레길 25km 등 4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익산 둘레길 독서마라톤'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5일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3-859-3731) /전북취재본부 = 류정영기자 ryu0418@

김제 보건소, 음식·숙박업소 서비스 교육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는 올해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최근 보건소 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모범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업주 8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옹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타운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주소: (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